

도교육청 이번엔 부적절 발언 구설수

중등체육교사 합격 잇따른 번복에 신뢰도 추락 피해 본 응시자 만나 “개인적 도움 줄 수 있다” “임용시험 공정성 의심 들어” 비판 목소리 나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번복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사과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되레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2020학년도 제주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체육 교사 합격자를 변경해 공고하기 전에 응시자 B씨에게 이번 일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

했다. 도교육청이 합격자를 번복한 것은 이때가 두번째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합격자 명단을 공고한 뒤 체육 교과 응시자 12명의 실기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7시간 만에 합격자 명단을 수정한 데 이어 자체 감사에서 실기평가 항목 1개 성적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이를 재차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합격자는 A씨에서 B씨, B씨에서 C씨로 바뀌었다. B씨

입장에선 '불합격→합격→불합격' 순으로 통보를 받은 셈이다. 합격 통보를 받고 임용후보자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에 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는 13일 B씨가 거주하는 서울에서 그를 만나 합격자를 번복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B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의 담당자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B씨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한번 제주시로 시험을 봐라.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건네며 연락을 해드 되는지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장, 장학관은 시험 평가관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며 "그

런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수험생이 교사가 되길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닌 무언가라도 도움이 될 게 없었을 것"이라며 "전출을 앞두고 있고 평가관을 맡을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지은·김다혜 기자

“마을 관통하고 혐의도 없이 진행” 서귀포 하원마을 LNG공급설비공사 반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도시가스가 '제주도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건설 공사'에 따른 가스공급 배관 및 시설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마을회(회장 강상기)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5일자로 하원동 956번지 일원에서 강정동 4117번지 일원까지 LNG 가스공급 배관 시설 계획에 따른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라면 LNG 가스공급 배관 시설은 하원마을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에 하원마을 주민 협의 없이 제주도가 일방적

으로 해당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상기 하원마을회장은 "위험시설이라 할수 있는 LNG가스 배관이 마을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가 LNG 공급설비 건설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주말 하원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분간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꽃망울 터트린 자목련.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15일 서귀포시 이충서미술관 정원에 자목련이 일찍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민기자

해군기지 진입도로로서 유물 발견

청자 저부편 등 20점 고려시대 가장 많아 신석기시대 토기편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석기와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 사진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시 강정동 3168-1번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에서 청자 저부편 등 20점이 발굴됐다.

발굴된 유물을 시대별로 보면 고려시대가 12점(청자 저부편 8점·청자 구연부편 2점·기와편 1점·토기편 1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석기시대 5점(모두 토기편), 조선시대 3점(백자 저부편 2점·백자편 1점) 순이었다.

이번 발굴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이뤄지기 전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발굴기간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로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이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매

장문화재 출토유물 공고'를 내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소유권자를 찾고 있다. 만약 90일 내로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해당 유물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게 되며, 이를 받은 문화재청은 검토를 거쳐 보관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위낙 옛날 유물이라 소유권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문화재청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강정동은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피난공터가 있었다는 주장이 역사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토된 유물도 대부분 고려시대 것이었다. 송은범기자

취소 고심하던 '들불축제' 열린다

일정 축소... 실내행사 취소 중국 등 해외자매도시 올해는 초청하지 않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2020제주들불축제가 축소 개최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4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위기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들불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방역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참여로 열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등 14개 자매결연도시를 올해에 한해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실내 행사를 하지 않는 등 축소 조정했다.

행사는 제주시 에일을 새봄을 일대 들불축제장에서 예정됐던 야외 행사 위주로 운영된다. 시내권에서 개최되는 서막행사를 축소 조정하고 실내행사인 환영만찬을 취소하는 등 당초 4일간의 일정을 3일로 조정했다. 당초는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운영될 예정이었다.

시는 또 행사장 현장에 의료진을 배치한 현장진료소와 방역대책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천막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함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부스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한편 이번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1997년 시작돼 올해 23회째 행사를 맞는 들불축제는 문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 파동이 일면서 들불축제 모든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대 중등교사 73명 합격

제주대학교는 각 시·도에서 시행된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공립 63명, 사립 10명 등 총 7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전공별로는 수학교육 11명, 일반사회교육·윤리교육·식품영양 각 8명, 국어교육 7명, 생물교육·컴퓨터교육 각 6명, 지리교육·체육 각 5명, 영어교육·물리교육 각 3명, 가정교육·음악교육·상담심리 각 1명이다. 전선희기자

장전초총동창회 알림

2019년도 결산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동문님들은 주변동문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참석부탁드립니다.

- 내 용**
감사보고, 결산보고, 2020년예산, 임원개선, 기타
- 일 시**
2020.2.23[일] 10:00
- 장 소**
모교 한울마루강당

장전초총동창회 회장 강평구 올림

모교를 빛낸 동문들

수훈 동탑산업훈장	취임 하귀농협 제18대 조합장	취임 하귀농협 제5대 상임이사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수도본부 여수도부장	수상 대통령표창	승진 제주해양경찰서장	합격 차량기술사	합격 건축사
강석희(16회) C헬스케어 대표	강병진(19회) 본회 수석부회장	강창선(20회) 본회 부회장	강경돈(25회) (주)이슬루션 상무이사	이상호(25회)	고민관(29회)	강문보(40회)	고덕수(42회)

위 동문님들의 각 분야에서 수상·취임·승진·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전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강 평 구 외 회원일동